2015.12.27.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서-

아가 4:1-15, 로마서 5:8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중요한 시간표에,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보다 유혹도 스트레스도 해야 할 공부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주옵소서. 개인으로도, 가정에서도, 학업으로도, 미래에 대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얻게 하시며, 오늘 말씀이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 문제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이 안에서 찾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아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1)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는데, 순서상으로는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썼고, 잠언은 전성시절에 썼으며,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말년에 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아6:8-9에 보면,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이라고 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정략결혼을 할 때였기 때문에, 볼모를 잡아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미에서의 후와 빈들인데, 왕상11:3에 보면, 나라가 커지면서 비와 빈도 더 많아진다. 왕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되어 있으니 합하면 1천 명 정도 된다. 이것을 통해서, 아가서가 왕의 젊은 시절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록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나님이 특히 아가서를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솔로몬은 천한 출신의 술람미 여인, 그리 아름답지도 않은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아마 본인도 나중에 깨달았을 것이다. '나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술람미 여인은 농장의 목동이었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으며 얼굴도 검고 못생겼는데, 이런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장면이 나온다. 중간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 가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것은 거듭남을 말한다. 후반부로 가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양들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검고 못생겼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예배도 가기 싫은 갈등의 과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것, 성탄절은 당연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된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헌신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예쁘다 싶다. 늙은 장로님이 예뻐 보인다. (웃음) 그것이 성숙된 것이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처럼 못생겼고 피부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았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란다.

(3) 아가서를 읽어보면, 나는 쉽게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러분은 수십 번을 읽어도 이 흐름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성경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내용이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가서다. 얼마나 어려운지 읽어보라. (웃음)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유명한 신학자는, 25년 동안 아가서만 설교한다. 시적으로 표현된 이 내용이,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종교로 예수를 믿으면 한계가 온다. 어떤 분은 교회를 왜 오느냐 하면 마음이 편해서라고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2년 동안 매주 부산에 내려가더라. 힘들지 않느냐고 했더니 하나도 안 힘들다고 했다. 2년 동안 주일마다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라. 힘들다면 그것은 종교다. 사랑하면 핑계가 없어진다. 시간 없고 바쁘다 해도 사랑하면 다 만나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 이유고 핑계다. 종교심이 커지지 말고, 교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하면 이것이 신앙의 다가 된다. 전부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란다.

(4)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갈등, 결혼과 그 후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설교하는 분들은 아가서가 연애편지라고도 하고, 진한 애정표현이 많아서 설교하기 힘들다고 하기도 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야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찾아낸 사람은 시대적인 신학자다. (웃음) 그렇게 난해한 책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1. 아가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아가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1) 아가서는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는 소설처럼 스토리가 있거나, 시간의 흐름이 담겨져 있지 않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책은 시간의 흐름 따라 기록되었지 않나? 그런데 아가서는 그런 시간, 공간의 개념이 이어져 있지 않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갑자기 농장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그렇게 된다. 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유적,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 있다.

(2) 또 한 가지,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표현들에 대한 의미를 좀 공부해 두어야 한다. 그러면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 아1:5에 보면, '게달의 장막'이 나온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가? 검다고 했다. 검어서 아름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검은 것이 아니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했다. 이것은 양 가죽으로 만든 양치기들의 천막이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아서 변색된 것이다. 술람미 여인의 직업은 양치기였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서 양을 치니까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나? 게달의 장막, 양가죽 텐트같은 피부를 가진 것이다. 모습도 너무 그렇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나타나서,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황공무지한 일이다. 옷도 남루하고 피부도 검고 못생겼는데 솔로몬 왕이 와서 구애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솔로몬의 휘장같다고 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천막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인간성이나 성격은 게달의 장막같다. 안 좋고 거칠다. 너무 나쁘다. 삶의 현장에 있다 보면, 게달의 장막처럼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진다. 신앙생활하면 상처가 더 많아진다. 우리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만신창이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앞에서 예배 안 드리고 떠들고 자도 예쁘다. 돌아다녀도 예쁘다. 아이가 힘들다고 떼를 쓰고 울고 난리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웃고 있다. "쟤가 건강하니까 저렇게 우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것이다. 요즘 마약환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귀여워 보이더라. 답이 있으니까.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있으니까, 과거, 문제, 갈등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도 희망이 보이니까 예뻐 보인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있어도 변화되어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를 말하면 얼마나 증거가 되겠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미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기다려줄 수 있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축복할 수 있다.

(3)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가서가 오페라나 뮤지컬의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캐스팅을 해야 한다. 못생긴 여자가 있는데, 솔로몬이 나타난다. 얼굴이 김수현이다. (웃음) 나타나서 김수현이 노래를 부른다. "내가 당신에게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웃음) 이거 안 하려고 한 건데. (웃음) 그러면 여자가 반대쪽에서, "저는 게달의 장막 같은데요~♬" 하면서 또 노래로 화답한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쳐준다. 내가 힘들게 알아낸 것이다. (웃음) 생각해 보라. 술람미 여인이 왕비가 되었을 때, 솔로몬이 나중에 이것을 기념해서 직접 오페라 작품을 만들고,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공연으로 올린 것이다. 여기에 술람미 여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백성들이 이것을 쳐다보는 것이다. "야, 저분이 과연 옛날 그 양치기 여자였단 말이야? 그렇게 못생겼었는데 이렇게 예뻐질 수 있어? 우리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다윗의 3천 명 성가대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번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재창조를 해 가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솔로몬처럼 작품을 만드시기 바란다. 그래서 아가서를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 보라. 이해가 빨리 될 것이다. 또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고민했기 때문이다. (웃음) 아가서가 너무 어려운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4) 지금 아1:15, 16은 1인다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 특히 왕족, 귀족 여자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검은 피부 속에 숨겨져 있는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본 것이다. "나는 너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못 봤구나." 어여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창하다고 했다. 사람이 밝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화창해진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정말 게달의 장막 같았다. 옆에서 보면 코가 안 보인다. (웃음) 다리도 짧고 다 짧다. 우리 아버지는 정

말 잘 생겼었는데, 영화배우 같았다. 이해가 안 됐다.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와 결혼했을까 싶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신다. 어머니를 화창하게 본 영안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처음으로 칭찬해 보네. (웃음) 어머니는 항상 좋아하시는 구절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것. (웃음) 진짜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외모에 인생을 걸면 안 된다. 그것은 없어지고 사라진다. 영적 상태를 정말 아름답게 해야 한다. 만날수록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렘넌트, 만날수록 존경스러워지는 렘넌트가 되라. 복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 것이다. 이 본문은 1인 다역인데, 첫째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람을 술람미 여인으로 볼 때는 말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되는데, 이 사람을 솔로몬으로 보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 왕비가 되었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해야 할 렘넌트가 대상이 되고, 말하는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 된다. 그래서 주역이 누구냐,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자꾸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솔로몬도 될 수 있고 술람미 여인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1인 2역을 해 보라. 심지어 솔로몬, 술람미라는 이름이 '평화'라는 뜻의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되고, 또 술람미 여인도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노래하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도 그렇다.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 어떤 때는 신랑 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 어떤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아가서를 보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2. 아가서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

본문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깊이 성경을 보자.

(1) 아1:3을 보라.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에서 '너'는 누구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닌가? 세상에는 샤넬 향수도 있고 좋은 것이 다 있지만, 믿음이 좋아지고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 우리의 악취를 없애줄 수 있는 좋은 향기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네 기름'이라고 하니까 반말 같은데, 표준새번역에서는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이라고 번역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닌가. 그러면서,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이라고 했다. 학교에 갔더니 친구의 노트에 빽빽하게 뭔가 기록되어 있었다. 단어공부인 줄 알았더니, 좋아하는 사람 이름이었다. 나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지만. (웃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만 들어도 '심쿵'하지 않나. (웃음) 심쿵이라는 말은 심장이 쿵 한다는 말이다. (웃음)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성령충만하면 예수 이름만 들으면 심쿵하게 될 것이다. (웃음)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는 것이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은 여성명사인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 곧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시다.

(2) 아2:2의 말씀을 보자. 이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신앙의 꽃을 피운 성도들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다. 주님의 사랑 고백이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무슨 말인가? 가시가 많은데 거기에서 꽃이 핀 것이다. 이번에 주기철 목사님 다큐드라마를 여러분이 보셨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가시밭의 백합화다. 그때만 어렵나.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가.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가. 친구들은 다 욕질을 하고,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다 세상 음악을 듣는데,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렘넌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께 백합화처럼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한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란다. '내 사랑아'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my darling', 또는 'my love'라고 되어 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 아가 3장은, 성도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3:7을 보면, 솔로몬이 가마를 가지고, 60명 군인을 동원해서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온 것이 보인다. 목동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멋있게 차려입은 왕이 황금 가마를 가지고 데리러 온 것이다. 아3:7 이하를 보라. 솔로몬은 최고 군대를 동원했다. 그리고 황금 가마를 동원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신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곳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인가? 아3:11이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왕관은 아버지가 씌워줘야 하는데, 어머니가 씌워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아4:7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내용이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가? 정말 자기가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가? 너무 잘못이 많고 흠이 많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져 버리고 나니까 흠이 없어져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안경을 써라. 그래서 흠 없이 보도록, 복음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5) 아6:1-4을 보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성령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는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아6:2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느 현장에 있으신가? 구원받은 그 생명을 양육하는 곳에 계신다.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여러분도 가시기를 축원한다. 아6:3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죄에 빠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 나도 양떼를 가시덤불이 있는 현장에까지 가서 찾아오는 사역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성숙해진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다.

(6) 마지막으로, 아8:6-7을 보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말씀이다. 우리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시기를 축원한다. "도장 같이 팔에 두라." 문신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한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하니까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세상에 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너무 싫어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8:7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이미 체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못 느꼈다면, 하루속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 그때가 올 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첫째로, 복음의 유일성을 지켜야 한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술람미 여인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좋아하고 살아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오직 예수다.

(2) 둘째로, 24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누구를 사랑하고 연애하면 24시간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 애인은 안 떠오르더라도 주님이 계속 떠오르게 되기를 바란다. (웃음) 연애를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방법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남은 사랑, 애인, 가정은 하나님이 모두 주실 것이다. 사랑도 있어야 하고, 애인도 있어야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취미도 스포츠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3)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받은 자는 줄 수 있지 않나. 계속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수용하고 용서도 해 줘야 한다. 게달의 장막 같은 사람도, 꾸짖기만 하면 안 된다. 비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비판하셨다면 우리는 진작 죽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지 않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종교적,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 삶으로, 내게 주신 응답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세상 모든 더러운 유혹과 흑암 세력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